

2 종합

제2기숙사 식당, 새로운 업체로 9월 중 재개장 목표

서민주 기자 smj13221@khu.ac.kr

【국제】지난달 31일, 제2기숙사 식당 업체 리앤이라마피네가 약 23개월 만에 계약 종료로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9월 중 재개를 목표로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운영 종료는 계약 당시 조항을 근거로 이뤄졌다. 지난 2023년, '식당 만족도 조사 결과 60점 미만의 점수가 3회 이상 도출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학기별 만족도 조사 결과 지난해 1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최근 세 차례 모두 60점 미만의 점수가 산출돼 해지 조건을 충족했다. 제2기숙사 행정실 조미희 대리는 "이 외에도 식사 품질 저하 등 복합적인 이유로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1학기 만족도 조사 종료 후, 결과 검토와 내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16일 업체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고, 6월 말부터 7



제2기숙사 식당 기존 업체가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9월 중 새로운 업체와의 운영을 앞두고 있다.

(사진=대학주보 DB)

월 초까지 업체와 협의를 거친 끝에 7월 17일 계약 해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현재 제2기숙사 식당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는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조 대리는 "식당 재개 전까지는 학생들이 우정원 푸드코트 및 학생회관 식당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업체 선정은 나라장터 공고를 통해 진행됐다. 제안서 접수와

평가·가격 개찰 절차를 거쳐 8월 7일 입찰이 마감됐으며, 같은 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현재는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식당 운영 재개는 9월 중순에서 말 사이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이번 입찰에는 총 7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조그룹 계열사인 '푸드리스트'로, 대학(서울대·인하대 등)과 기업, 관공서, 병원 등에 위탁 급

식을 제공하는 종합 식음료 기업이다. 일단 현재는 계약이 최종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제2기숙사는 새로운 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식사 품질'을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고려했다. 조 대리는 "매뉴 다양성, 영양가 있는 식단 구성, 위생 관리와 사고 대응 방안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었다"며 "조리사, 영양사의 경우 10~15

년 이상 경력자를 요청했고, 하루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운영 역량을 갖춘 업체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학생회관 식당 운영을 맡고 있는 생협의 식당 확장 운영 방안 역시 고려됐으나 최종적으로 반려됐다. 제2기숙사는 사업자가 학교가 아닌 사학진흥재단으로, 재단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보통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한다. 제2기숙사 측은 생협에 입찰 참여를 제안했으나, 내부 여건 상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조 대리는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방식도 검토했지만, 규정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이번 건은 해당이 안 돼 경쟁 입찰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식당 운영에 대한 불편을 인지하고 있으며, 학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라며 "재개 이후에는 보다 나은 식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최고등급 'S' 받아
120억 국고 교육·인프라 개선에 활용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우리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 연도(2025년)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전공자율선택제 모집인원 확대,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거버넌스 개편 등의 정책 시행의 결과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우리 학교는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첫 해인 2019년도부터 3주기인 현재까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3주기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 2월 까지 예정돼 있다.

성과평가는 최상위 S등급과 이후 A등급부터 C등급까지 구분된다. 우리 학교는 2023년도 B등급, 2024년도는 A등급에 이어 올해 S등급을 달성하며 120.32억 원 수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8,852억 원에서 7,955억 원으로 전체 국고

예산이 감소하고, 참여 대학이 117개에서 138개로 증가하며 좋은 평가와 지원금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S등급 확보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우리학교 교육혁신사업단 이원구 단장은 "교육부 추진 방향에 맞추면서도 다른 대학과의 차별을 위하여 우리의 교육혁신 방향을 미래대학 교육 생태계로의 혁신으로 전면 수정했다"며 "주요 전략으로 전공자율선택제 모집인원 확대와 열린전공 및 전공 소속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교육혁신처 신설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등의 계획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받아 최고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전공 인원 확대
거버넌스 개편 등이 견인

우리 학교는 2026학년도까지 모집정원의 26.6%, 2027학년도에는 30%까지 무전공 인원을 확대했으며, 무전공 학생들의 경우 2학년 진급 시 전공 100% 선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전공·융합전공·학생설계전공·마이크로디그리를 유연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다전공 승인 인원 제한 해제 추진 ▲계열별 교차 수강 확대 ▲크로스리스팅 활성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병행했다.

이 단장은 "또한, 기초학문 보호와 교양교육 고도화를 위한 후마니타스칼리지 3.0, 질문 중심 교양수업, SDGs·ESG 연계 융합교양 트랙 운영 등도 교육의 질과 대학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며 "이러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S등급 달성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개편에 관해서는 "단순한 조직 재배치가 아닌, 미래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 개편"이라 설명했다. 이 단장은 "기존 교육혁신사업단의 기능을 확장, 고도화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설정한 교육혁신 목표와 방향을 이룩, 미래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무처 산하 학사지원팀, 교육혁신사업단, 교수학습개발원을 교육혁신처로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교육혁신처 신

설 전 구성원 의견 수렴과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신설된 IR&A센터에서는 학사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생 지원, 성과관리까지 통합 관리한다. 대학경영 성과와 국고사업 성과를 통합해 분석, 관리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과 성과 환류를 체계화하려는 목적이다. IR&A센터 신설에 관해서는 우리신문에서 보도한 바 있다.(속도 내는 '데이터 행정' IR&A센터 신설, 성과 관리·전략적 의사결정 지원/대학주보 1744호/2025.07.05.) 이 단장은 "이는 연구재단 평가에서도 권고된 사항으로, 향후 교육혁신 전략의 정밀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 말했다.

120억 예산
교육·학습·인프라 개선에 투입

예산팀은 S등급 획득으로 받은 지원금을 ▲부서·단과대학의 교육 및 학습 혁신 ▲취업·진로 탐색 ▲사회 공헌 ▲노후 실습 시설 개선에 50억

▲중앙도서관 및 교내 디지털 인프라 개선 ▲교육 혁신 플랫폼 구축에 50억, 남은 20억 원은 교육혁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우리 대학의 교육혁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공모형 사업인 Nexus 사업에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총장 중점 과제 및 본부 전략 방향 기반의 교육혁신 플랫폼 구축 ▲중앙 도서관 인프라 개선 혁신 사업 ▲3주기 교육혁신 전략 기반의 단과대학 단위부서별 발전계획 관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설정한 우선 투자 분야이다. 예산팀은 "이를 통해 교육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라 밝혔다.

해당 지원금 사용 계획 수립에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도 반영됐다. 예산팀은 "매년 재학생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포함해 열린 총장실, 총장과의 만남과 같은 다양한 학생 소통 창구를 교육혁신 방향과 사업비 사용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앞으로의 중장기적 목표로 "미래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성과 기반 환류 체계 고도화 및 장기적 교육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국내외 타 대학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교육혁신 우수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토대로 미래대학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교육혁신모델을 만드는 것"이라 밝혔다.